

낚시를 재미있게 하려면

— 초심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초상식 —



권찬경
(광명시 철산동 광복APT 11-106)

그러나 대부분의 낚시 동호인들이 주로 민물낚시에 주력하고 있어 낚시터마다 낚시꾼이 포화현상을 자아내고 있으며 공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하천과 호수는 점차 오염되어가고 있어 그 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낚시터에서는 낚시꾼의 과밀현상으로 아귀 다툼이 발생하는 불미스런 문제마저 야기되고 있으며 한심스런 일이다. 그에 반해 견지낚시는 이글거리는 외약별과 폭염을 피하여 허리까지 차는 계류에 몸을 담그고 간단한 차림새로 낚시재미를 만끽하며 청량감마저 즐기는 이중 효과가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슬기로 개발된 우리민족 고유의 낚시방법으로 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랑스런 낚시방법이다. 누치, 쏘가리, 마자, 모래무치, 임어 등 대상어종도 풍부하고 드릴넙치는 낚시로 찬양받고 있다. 계류에서의 루어낚시는 근년 점차 동호인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식어종을 루어나 소린니, 뿌리그등의 인조미끼로 낚아내는 재미도 각별한 맛이 있는 개량된 낚시방법으로 발전의 소지가 풍부한 낚시방법이다.

한편 바다낚시 동호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민물낚시가 정적인 낚시라고 표현한다면 바다낚시는 동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호연지기를

취음으로 낚시를 해보고자 할때에는 누구나가 몇가지 의문점을 갖게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한다면 당혹하기 마련이다.

우선 낚시를 시도해 보기전에 다음 세가지 필수요건을 염두에 두고 한가지씩 그 문제점을 심사숙고하여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먼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낚시는 어떤 낚시인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다음으로 체력에 맞는 낚시를 시작해야 한다. 끝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많은 호수(저수지와 자연연)와 하천 그리고 각지방에 축조되는 대형 다목적댐 등 멋진 민물낚시와 계류낚시가 가능한 곳이 무수히 산재되어 있어 손쉽게 낚시가 가능한 실정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마음만 먹으면 바다낚시도 즐길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산간계곡을 흐르는 맑고 시원한 계류 또한 어족이 다양하여 견지낚시가 가능하며 외국에서 이식한 외래어종이 이식에 성공, 자연번식하며 토착화되어가는 실정으로 릴낚시가 활발하게 개척되고 있다.

맛볼 수 있는 낚시라 하겠다. 낚시방법도 민물낚시에 비하면 다양하다. 백사장에서 먼 지평선을 향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마음껏 던지는 던질낚(원투낚시), 방파제나 측항 또는 육지에 인접한 갯가에서 릴낚시 또는 장대만으로 하는 낚시, 배를 타고하는 배외줄낚시, 그런가하면 몇십리 몇백리씩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지방에서 하는 갯바위낚시, 배를 타고 곳곳을 누비며 초대형급 고기와 대결하며 호쾌한 맛을 자랑하는 꼬시미낚시(트로링)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낚시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다이내믹하고 남성적인 낚시에도 난점은 있다. 우선 강한 체력이 요구되며 넉넉한 낚시일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비가 의외로 과중하게 든다는 점이다.

반면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짧은 시간, 최소한 경비와 보통체력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은 민물낚시의 경우 그리 큰 부담은 없겠으나 바다낚시의 경우는 다르다. 대상어종, 시기, 방법 등에 따라 장비와 채비가 각각 다른 관계로 일일이 마련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관계로 경비의 과다한 지출이 요구된다.

특히 낚시꾼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트로링낚시의 경우 장비의 가격, 출조비용의 과다와 초저물급의 고기와 대결에 견디어 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고로 좀처럼 손대기가 힘든 낚시라 할 수 있다.

갯바위낚시의 경우 무인고도에서 대물급을 상대로 할때 튼튼한 장비와 악천후속에서 견디어 낼 수 있는 지구력과 강인한 체질이 필요하다. 이러한 낚

시에 따른 특성을 심본 감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낚시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낚시가 취향에 맞는지를 검토한 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일단 자기가 원하는 낚시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을 내리면 그 낚시에 걸맞는 채비나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여 한번에 이것저것 닦치는대로 도구를 장만하지 말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료나 선배조사의 자문을 구하여 필요불가결의 도구와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낚시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연히 터득하게 된다. 그때에 하나씩 추가구입하여도 무방하다. 일시에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는 지름길이다.

바다낚시의 경우도 자기의 모든 형편을 감안하여 가고자하는 낚시터와 대상어종을 염두에 두고 채비나 장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에도 선배나 동료조사의 자문을 구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갯바위 낚시의 경우는 필요한 장비나 채비의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구는 꼭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갯바위신발이나 라이프자켓, 신호기구 등은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단독출조는 절대 삼가해야 하며 몇명씩 조를 편성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물건도 경험이 풍부한 선배조사의 자문을 구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다.

아무리 취미생활을 한다하더라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일이기에도 모든 점을 숙고하여 경험이 풍부한 선배조사

의 의견을 존중해야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가 가능하다. 낚시에 앞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익혀두는 예비지식이 아쉽다.

바다낚시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장비나 도구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도구와 장비도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르고 별려서 간 낚시출조에서 장비나 도구의 결합이 있어 모처럼 낚은 고기를 부주의와 부실로 놓친다면 호소할 길이 없다. 따라서 기왕에 마련하는 장비인 만큼 다소 경비면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믿을 수 있는 충실한 제품을 선호하는 슬기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제선호가 아니고 안전 제일을 표방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이다.

이상 몇가지 낚시를 예로 설명드렸다. 다만 여기에 열거한 모든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기의 체력, 경제적, 취향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에게 걸맞는 낚시를 택하는 것이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지게 될 것이다.

낚시는 본질적으로 무궁무진한 방법과 테크닉, 장비, 채비가 필요한 취미생활이며 간단한 설명만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이 허다하다. 낚시에 앞서 풍부한 경험과 낚시에 조예가 깊은 선배조사의 세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낚시의 기량발전에도 플러스가 된다. 이는 점을 인식하여 사전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각 낚시마다 전문적으로 심취하는 낚시꾼이 있으므로 물색해 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